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4월 8일

CUOMO 주지사, 이민자 기업인 교육 시리즈를 출범시키다

100여개의 이민자 기업인 세미나가 내년에 뉴욕주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창업과 비즈니스 발전을 돕기 위해 이민자 기업인 교육 시리즈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달에 시작하는 첫 번째 연수 시리즈와 더불어 내년에 100여개가 넘는 이민자 기업인 세미나가 뉴욕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창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오랫동안 뉴욕의 성공적인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자 기업인 교육 시리즈는 뉴욕주 ONA(Office for New Americans), ESD(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이 고유한 "진입" 과정은 새롭게 꽃피우고 있는 현 이민자 기업인들에게 창업, 회사 운영 및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가 끝날 무렵 비즈니스 지식에 대한 레벨에 대해 평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 경험, 창업 및 발전 과정 상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후속 1대일 비즈니스 코칭 세션 또는 보다 집중적인 다주 연속 과정을 제공 받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끝날 무렵이 되면 사업계획서 또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완료하거나 갖가지 연방, 주 및 민간 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제1차 과정은 이달에 시작하며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뉴욕주 ONA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이 사이트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뉴욕주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민 정책 센터(Immigration Policy Center)에 따르면, 2010년에, 뉴욕주에 있는 모든 사업 소유자의 31.2%가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뉴욕시 수도권에서 36%까지 상승합니다. 이들 기업은 1백26억 달러의 총 순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주 전체 순 사업 소득의 22.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이민자는 매년 연간

경제 생산량에서 2,290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항상 번영을 찾아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라고 뉴욕주 국무장관인 Cesar A. Perales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국인들(New Americans)에게 창업에 필요한 도구와 안내 역할을 제공하는 식으로 우리 주에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될 기업인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기업인 교육 시리즈에 참여하고 우리 프로그램과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ESD 사장,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소기업들은 뉴욕주 경제의 초석이자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발전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소기업 및 MWBE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이 교육 시리즈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려는 활동에 또 다른 도약이 될 것입니다.”

“ New American 커뮤니티는 우리의 가장 역동적인 다수의 커뮤니티에 큰 다양성과 에너지를 가져다줄 매우 기업가적인 부문을 대표합니다”라고 뉴욕 SBDC State Director인 James King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참가자들이 우리 주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을 계획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데 뉴욕주 ONA과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소기업개발센터(SBDC)와 ESD의 기업가지원프로그램은 이러한 세미나를 지원할 파트너 기관입니다. 뉴욕주 SBDC는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상인 및 기업주들에게 소기업 자문 서비스, 교육 및 비즈니스 연구를 제공합니다. ESD의 기업가지원프로그램은 최근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훈련, 기술지원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커뮤니티에 EAC(Entrepreneurial Assistance Centers)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24 EAC 센터는 전략적으로 뉴욕주 전역에 세워졌고, ONA를 도와 이 새롭고 야심에 찬 기업인들이 회사 소유라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초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가정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ONA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무실은 뉴욕주에 퍼져 있는 27개 이웃 기반 Opportunity Centers라는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인들(New Americans)에게 영어 학습을 제공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추방유예신청(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자문 및 기타 기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NA가 운영된 첫 해에 34,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민자들이 뉴욕주의 시민 및 경제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Cuomo 행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에 따라 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현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 사회 및 뉴욕의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된 경우 이전 행정부는 연방 보안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의 계약 목표를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8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 월, 주지사는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에 계약을 달성에 20%의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고숙련 이민자들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The Cooper Union and Bnai Zion Foundation과 혁신적인 민관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양식 및 지침에 대한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 26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Cuomo 주지사는 Harlem, Washington Heights, Brooklyn 및 South Bronx에 있는 49개 건물의 거의 1,800채에 이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중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주 세입자들에 대해 신고된 괴롭힘과 협박을 종식시키고 커뮤니티가 보다 공정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